

명현관 해남군수 '지속가능 혁신도시' 청사진 그린다

시정연설...2025년 군정 목표 제시
미래성장동력 2030프로젝트 추진
인구감소 대응 인프라 구축 주력
철도·지방도 등 교통SOC 확충 등

명현관 해남군수가 군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등 내년 군정운영방향을 제시했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명현관 군수는 지난 4일 해남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군정의 목표를 미래성장동력의 확보와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2030 해남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명 군수는 "올해는 해남의 20년, 30년을 준비하는 장기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2030 프로젝트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 특구, 양대특구에 선정되었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신성장 산업의 육성,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주력해 왔다"며 "지금까지의 변화가 가져온 성과를 모아 2025년은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가고싶고 머물고 싶은 역사문화도시, 사람온기 가득한 복지도시로서의 4가지 청사진을 그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민선8기 해남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30 프로젝트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수도' 비전을 브랜드화하고 전남도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해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에 준비하는 한편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농업연구단지 조성 등 미래농업과 신산업의 연계를 통해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농업농촌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 특구를 통한 기업유치와 신산업 육성 등 혁신도시 해남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인구 7만명 회복, 생활인구 300만명을 목표로 권역별 관광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와 함께 고속도로와 철도, 국·지방도 등 교통 SOC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고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 만들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출생기본수당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 군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방침이다.

군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강화와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내년은 20년, 30년 뒤의 해남을 지속가능하고, 찾고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의지와 실천이 중

요한 시기이다"며 "민선 7기부터 이어온 성과들을 바탕으로 민선8기 군정의 역점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장기발전의 동력을 마련하는 토적성산(土積成山)의 한 해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내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1.67%(148억원) 증액한 8973억원 규모로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8825억원보다 148억원(1.67%)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8813억원, 특별회계는 160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년 대비 49억원 증가한 290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2047억원(22.81%), 환경 분야 770억원(8.58%), 문화·관광분야 530억원(5.09%) 순으로 예산을 배분했다.

2025년 예산안은 해남군의회 심의를 거쳐 17일 최종 확정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고병원성AI 인체감염 예방 총력
강진군보건소

강진군보건소는 지난 2일 군동면 옥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발생에 따라 살처분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예방접종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옥용오리 2만2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지난 2일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방역기관에 신고하자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를 실시, H5형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으며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살처분 인력에 대해 투입 전 건강상태, 인플루엔자 접종, 보호복 착용 등의 인체감염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살처분 이후 증상 발생 때 주의사항 교육 및 10일간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해 인체감염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했다.

특히 고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제1급 감염병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 사체나 배설물에 접촉했을 때 인체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야생조류와 접촉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조류사체를 발견할 경우 절대 만지지 말아야 한다. 병원성은 닭, 오리 등 조류에게는 저병원성일지라도 사람에게는 고병원성일 수 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의 국내 인체감염증 발생사례는 현재까지 없으나 중국, 미국 등 해외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준호보건소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가금류와 접촉을 피하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건강관리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신안군,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안군이 2025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2025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경로당 청소 및 급식 도우미, 복지시설 도우미 등 17개 사업으로 2435명에게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기준은 공익활동사업의 경우 신안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다. 역량 활용사업은 65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유형에 따라 월 30시간 또는 60시간을 활동하고 월 29만원에서 최대 63만원의 활동 수당을 받는다. 신안=홍일갑 기자

완도군, 한파 취약계층 지원
차상위계층 1675세대

완도군은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한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약 1675세대를 대상으로 노후된 주택 개보수를 실시하고 난방비와 방한 용품을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단전, 단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굴한 300세대의 위기가구는 읍면 맞춤형복지팀이 직접 방문하여 긴급 복지 지원 등을 추진한다. 노인, 아동, 고독사 위험군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도 관심을 기울여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11일에는 봉사단체와 힘을 모아 취약계층 500세대에 전달할 김장 김치를 담근다.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2개월 동안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모금하고 모금된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원하는 경우 군 희망복지팀(061-550-5312)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정태영 기자



신안군 지도읍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2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대를 찾아 방치된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지도읍자원봉사자회, 집청소 봉사활동

신안군 지도읍 자원봉사자회(회장 홍경자)가 지난 2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 모자가정의 집을 청소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8일 신안군에 따르면 집안 곳곳 방치된 고물과 처분되지 않은 폐지 등으로 위

생 문제가 우려돼 2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읍사무소, 파출소 직원들의 손길을 모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중량이 있는 대형폐기물들은 지도읍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박경우 대표가 굴삭기를 지원해 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진

행됐다.

홍경자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규 지도읍장은 "봉사자들과 재능기부에 참여한 주민들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해남군, 청년마을에 농농길 치유숲 조성

소나무 수려한 경관 뽐내

청년마을로 조성되고 있는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에 농농길 치유숲이 조성됐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농농길 치유숲은 (구)옥동초등학교 건물 뒤쪽으로 이어진 소나무 숲을 새롭게 가꾸어 주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마을 만들기 주도하고 있는 농농길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제안해 올해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에 선정되면서 주민·단체 참여숲으로 조성됐다.

농농길 치유숲은 쭉 뻗은 소나무 군락지가 특색있는 곳으로 평소에도 인근 마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일원에 '농농길 치유숲'이 조성됐다. 해남군 제공

를 지역주민들의 산책 공간으로 사랑 받아왔다.

기존에는 폐교 건물 뒤편의 학교 숲이 있었으나 노후된 야외무대와 벽면 클라이밍 공간 등을 철거하고 잡목으로 우거진 숲의 밀도를 정리해 소나무의 수려한 경

관을 뽐내게 했다.

경사가 완만하고 쉽게 오갈 수 있어 가볍게 산책하기에 좋으며 넓은 잔디밭을 정비해 여유롭게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소나무숲 아래쪽으로는 맥문동을 식재해 여름철 보릿빛 숲속 정원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농농길추진위원회를 통해 숲속 미술관의 개념을 도입해 작품전시 및 창의적인 야외공간 이용까지 고려하고 있다.

해남군 황산면 옥동에 마을은 전전형 청년마을 조성사업과 농농길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해남형 청년 거점마을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청년마을 치유숲이 지역민들에게는 휴식을 주고 외지인들도 찾아올 수 있는 산림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관내 1만5551명 대상

해남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 4일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공익직불금 대상 농업인은 1만5551명으로 총 금액은 567억원이다.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를 지난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8억원 늘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남군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부정수급 단속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농지요건·농촌거주·영농종사·소득·소유농지 등 8가지 소규모 농가의 자격을 충족해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373명, 69억원, 면적 구간별 ha당 100만~205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1만178명, 498억원이다.

2025년부터는 농업인 기초 소득 안정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직불금의 전 구간 단가를 5% 상향하고 논·밭간 형평성 개선을 위해 비진출 발달 단가를 논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해남=전연수 기자